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항상 품으면 영생한다

영생의 확신이 생명과일이야!
영생의 확신만 가지면 늙지도 않아!
영생의 확신만 가지면 두려운 것이 없어!
영생의 확신만 가지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수 없어!
영생의 확신만 가지면 항상 기뻐~ 쉬지 않고 기뻐!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생의 확신으로 이긴자가 된 것이지, 무슨 뭐 가끔 가다가 믿는 마음으로는 이긴자가 절대 안 되었어요.

1991.10.20. 이긴자 말씀 중에서

오늘날 구세주께서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일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피가 썩지 아니하고 죽으려야 죽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하는 마음 곧 영생의 확신이라고 구세주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마음이 양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양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명백한 진리이다. 그럼 영생의 확신이 어떻게 하여 사람 몸을 죽지 않게 하고 영원무궁토록 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영생의 확신은 지구의 평화를 가져온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사람 몸에 있는 피가 영생하는 피로 점점 바뀌게 된다고 한다. 영생하는 피가 많아지면 그 피가 불멸의 세포와 불멸의 뼈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몸을 만든다는 학설은 “피 작용이 곧 마음 작용”이라는 과학에 근거한다. <영생의 확신>은 특정인의 소유물처럼 사고파는 그러한 물건이 아니다. 가난한 자이거나 부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시에 <영생의 확신>을 가진다고 해도 과유불급과 같은 부작용이 전혀 일어난 일이 없다. 사실 영생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건강을 되찾고 죽지 않는 몸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체험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체험으로 인하여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 따위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영생의 확신>은 사람의 몸을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영생을 추구한다

“인심(人心, 사람의 마음)은 오석변(朝夕變, 아침과 저녁으로 변함)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 사람은 영생의 확신을 지속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언제는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가 또 언제는 영생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이랬다저랬다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변덕스러운 성품이 곧 죄인의 정체성이요, 반면에 변덕이 없고 꾸준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품이 곧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구세주는 이 세상 보통 사람이 아니며 인간의 탈을 벗은 승리자 하나님이요, 그래서 구세주는 우리 인간과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 어떤 생각이 다른가 하면 구세주는 영생의 확신이 항상 껴 있다고 한다. 이런 점이 구세주가 영생하는 존재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구세주의 몸에서 영생의 물질이 되는 이슬성신(불교 용어로 감로광명甘露光明으로 통칭)이 나와 중생들의 피를 맑히고 있으니 구세주는 영생을 주는 존재이기까지 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존재가 성경(聖經)상에 주인공이요 불경(佛經)상에 주인공이다.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요한복음 5장 39절)”라고 하였다. 이 말은 영생이 있기에 성경을 상고하고 보는 것이지 영생이 없다면 성경을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또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였음이라.” 영생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또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영생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영생과 상관없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동양철학을 전공했거나 서양철학 또는 인도철학을 전공했어도 무

수한 철학 서적에 언급된 유명한 철학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항상 품으면 영생한다.”라는 온전한 영생학을 발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는 온전한 학문이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학문이요 철학인데, 진리란 한마디로 변치 아니하고 썩지 않는



영생의 확신으로 기뻐한 구세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며 또한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영생한다

것이므로 유사 이래 어떤 철학자도 사람 몸이 죽지 않는 학설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온전한 영생학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구세주께서는 “이 세상에 학문이 없었다! 또 이 세상에 종교도 없었다!”라고 하신다.

영생의 확신으로 영생한다는 구원의 메시지는 못 알아듣는 인간의 처지(處地)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항상 품으면 영생한다.”라는 구세주의 말씀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최고 축복의 메시지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인간을 주관하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신(神)이 되는 마귀(魔鬼)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현재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항상 품으면 영생한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실천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자신을 조종하고 주장하는 ‘나’라는 주체의식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단계,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으며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몸 자체가 경제 발달함으로 건강한 몸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영생의 확신의 마음

을 항상 품으면 영생한다.”라는 진리 말씀의 중요성을 깨우치지 못하고 구원의 문에 이르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치닫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네 분들은 기력이 쇠하여 걷기도 힘들고 이런 병 저런 병을 안고 살고 있기에,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항상 품으면 영생한다.”라는 진리 말씀을 접하게 되면 너무나 감격하고 쉽게 이 영생의 진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노인네 분들은 이미 피가 썩어 탁한 처지에 놓여 있기에,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피가 썩어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라는 진리 말씀의 귀중성을 얻은 깨닫지 못하고 좁은 길이 되는 영생의 길과는 반대로 많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는 무덤을 향한 죽음의 길을 고집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영생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곧 하나님 그 자체다

개는 개 생각을 하고 개소리를 내며 소는 소 생각을 하고 소의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구세주께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자기의 주체 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과 불경에 “나를 항상 버려라!”라는 말은, ‘나’라는 주체의식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마귀의 영이며 사망의 신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은, 자신을 주장하는 의식(意識)의 주인이 마귀의 영이라는 사실도 간파하지 못한 무지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마귀를 이기고 나를 제거해주시는 구세주 하나님의 주장함을 받아야 비로소 <영생의 확신>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영생의 영이 영생의 마음인 고로 영생의 마음이 영생의 확신인 고로 영생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종교가들이 모르는 것이다.” - ‘91.09.23 이긴자 말씀 중에서’ 사실 영생에 대한 확신은 인간의 ‘나’라는 주체의식이 품을 수 없고 인간 속에 양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만이 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으로 거듭난 구세주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나’라는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양심)이 석방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야 <영생의 확신>이 오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박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28>
“한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한국 땅에 동방의 의인, 이긴자가 나타나셨으므로 한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신천신지(新天地)가 도래하고 있다. 동방에서 나타난 초자연적인 정신문명이 서구 물질문명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를 비롯하여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미국의 비평가 셔어먼은 우리나라가 일본

의 식민지 생활을 당할 때 예언하기를 앞으로 한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였다.

이제그대로 동양사상이 세계를 지배하고 동방에서 초자연적인 문명이 나와서 서구 물질문명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예언이 맞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탄복할 때가 머지 아니한 것이다.*

우크라 전쟁과 자유율법

지금 전세계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일 것이다. 3월이면 끝날 것이라는 예측과 반대로 20여일 이상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주거지역까지 폭격을 가함으로써 무고한 인명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전으로 갈수록 인명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양측의 평화협상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핵전쟁 우려 점점 강해지는 우크라 전쟁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며 독재자라고 연일 가혹한 표현을 써가며 푸틴을 비난하는 가운데 푸틴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화학무기 사용 및 더 나아가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고, 만일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몇 시간 안에 3500만명 가량의 인구가 사망할 것이라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이 보도되는 실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평화협상이 다소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푸틴은 평화보다는 전쟁을 원하고 있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국경지대를 폭격하였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국보다 앞선 미사일 기술로 공격하여 서방 세계와의 대결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가운데 3차세계대전으로 비화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인류는 최근 2년 이상을 코로나 팬데

믹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잃었고 수천만 명의 환자를 배출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때 아닌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도시가 폐허로 변하는 참상을 겪고 있다. 인류가 처한 기후변화로 인한 난제 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에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촉발된 지구촌 군비경쟁이 2세의 냉전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자신 속 미움과 적개심을 없애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속에 전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의 영이 활개를 칠수록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구세주께서 계시 때에는 지구촌에서 전쟁이나 지진이 일어나면 그 책임이 승리제단 식구들에게 있다고 하셨다. 승리제단 식구들이 자유율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구세주가 전쟁이나 지진을 막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대량살상의 일을 막으려다가 승리제단 식구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승리제단 식구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3차세계대전 발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싶다. 구세주가 출현하지 않았다면 3차대전은 발발하여 인류는 전멸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세주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대장마귀를 멸하고 출현하게 되었으므로 3차대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며 자신 속의 미움과 적개심 증오심을 없애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죄인 속에 마귀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책



불교식으로 도(道)를 닦아야 생로병사 해탈하여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생미륵불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비밀을 마구니가 가장 잘 알기에 승려의 성불(成佛)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래서 생미륵부처님이 기독교를 타고 오셨는데, 마구니를 기만하고 마구니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곳에서 과거를 생각하려고 할 수 없는 경지와 나를 의식하려고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영생하는 부처님(하나님)으로 완성하셨다.*

구세주에 배말씀집

신간서적
승리제단 식구용

7

2001년 4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277쪽 / 큰 본문본

구세주 예배 말씀집 7집 펴냄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깊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의 말씀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복귀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